

## 경건한 자의 찬양

-1QH II, 31-39의 번역과 해설-

김판임\*

###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쿰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의의 선생의 찬양시로 알려져 있는 찬양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동일시하여 매우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을 찾는 신실한 자들도 적잖다. 경건생활의 모델로서 2000여 년 전 경건한 유대 종교 지도자인 의의 선생의 찬양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한다.

많은 찬양시들 중에 이 시를 택한 이유는 찬양자 자신이 “가난한 자”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이해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즉 찬양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곤궁에 처한 현실을 말하는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가?

---

\* 세종대학교 교수, 신약학

## 2. 1QH에 관하여

이 문서는 1947년 베두인이 발견한 첫 번째 쿨란 동굴에서 나왔다. 많은 수의 감사 찬양시들이 수록된 찬양시집으로서 감사하다는 뜻의 호다요트를 따서 1QH로 표기되었다. 이 문서는 각 단마다 40-41줄 정도의 줄로 이루어진 28개 정도의 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시들의 절반(II-XI)은 의의 선생이 기록한 것으로, 그의 개인적인 운명을 고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XII-XXIV)은 쿨란 공동체 저작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 공동체에 배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성령 수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

이 문서는 발견 직후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 수케닉에게 입수되어 1955년 처음으로 편집되었다.<sup>1)</sup> 그 이후 까미냐크와 쉬테게만이 이 문서의 앞부분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가설과 함께 순서도 수케닉과 다른 재구성을 제시했다.<sup>2)</sup> 1960년대 의의 선생을 연구한 예레미아스(G. Jeremias)와 쿤(H.D. Kuhn) 같은 초기 쿨란 문서 연구자들은 수케닉의 편집을 따랐으나,<sup>3)</sup> 쉬테게만의 편집설이 점차 학계에 인정되면서 쉬테게만의 편집을 따르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sup>4)</sup>

---

1) E.L. Sukenik, *The Dead Sea Scrolls of the Hebrew University* (Jerusalem: Hebrew University Press, 1955).

2) J. Carminac, "Remarques le texte des Hymnes de Qumran," *Biblica* 39 (1958), 139-155; H. Stegemann, *Rekonstruktion der Hodayot. Ursprüngliche Gestalt und kritisch bearbeiteter Text der Hymnenrolle aus Höhle 1 von Qumran*, Dr. theol. Diss. (Heidelberg, 1963).

3) 히브리 본문과 독일어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 E. Lohse, *Die Texte aus Qumran: Hebräisch und Deuts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도 수케닉을 따른다.

### 3. 본문과 번역

#### 1QH II, 31-39

31	אודכה אדוני כיא עינכה עמדה על נפשי ותצילני מקנאת מליצי כוב	
32	ומעדת דורשי חלקות פדיתה נפש אביון אשר חשבו להתם דמו	
33	לשפוך על עבודתכה אפס כי לוא ידעו כי מאתך מצעדי וישימוני לבזו	
34	והרפה בפי כל דורשי רמיה ואתה אלי עזרתה נפש עני ורש	
35	מיד הזק ממנו ותפד נפשי מיד אדירים ובגדפותם לא התחיתני	
36	לעזוב עבודתכה מפחד הוות רשעים ולהמיר בהולל יצר סמוך אשר	
37	חוקים ובתעודות נתתנו לאזנים	ה
38	לכול צאצאיהם	
39	בלמודיכה	

31

- a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 b 왜냐하면, 당신의 눈동자가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 c 거짓 해석자들의 열정으로부터 나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4) 호다요트의 편집에 대한 쉬테게만의 가설은 퀴에쉬에 의해 검증되었고 여러 번역자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가령 마티네[Florentino Garcia Martinez & Eibert J.C. Tigchelaar,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1997)]와 독일의 요한 마이어도 이를 따르고 있다. J. Maier, *Die Qumran-Essener: Die Texte vom Toten Meer, Bd I, UTB 1862* (München: Ernst Reinhardt, 1995), 45-48 참조. 수케닉과 쉬테게만의 편집상의 차이에 관해서는 마이어, 45-46 참조. 마이어에 의하면 수케닉의 편집에서 I-XII단은 쉬테게만의 편집에서 순서의 엇갈림없이 IX-XX이며, 수케닉의 편집에서 XIII-XVI는 쉬테게만의 편집에서 V-VIII로 연결되고, 다만 수케닉 편집에서 XVII이 쉬테게만에 의하면 IV에 해당한다. 그리고 XVIII은 XXI에 해당한다.

32

- a 매끈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의 공동체로부터
- b 당신은 **가난한 자의** 영혼을 구하셨나이다.
- c 그(=가난한 자)를 그들은 멸하려 하였고,

33

- a 당신을 위한 제물 때문에 그의 피를 흘리려 하였나이다.
- b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으로부터 나의 발걸음이 나오는 것을.
- c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능멸하였고,

34

- a 기만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의 입으로 수치가 되게 하였나이다.
- b **그러나 당신, 나의 하나님,**
- c 당신은 **불쌍한 자와 보잘 것 없는 자의** 영혼을 도우셨나이다.

35

- a 그)보다 더 힘센 자의 손으로부터.
- b 당신은 힘센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구하셨나이다.
- c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욕으로 인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셨나이다.

36

- a 그리하여 내가 불경한 자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로 인해
- b 당신을 위한 제의를 포기하거나,
- c 확고한 가치를 잃고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나이다.

---

5) 여기서 복수형을 쓰인 그들이란 바로 앞에 나오는 “불쌍한 자와 보잘 것 없는 자”를 복수로 받은 듯하다.

37

a . . . . .

b 계명들, 그리고 규정들을 통해 꺾전에 주어졌나이다.

38

a . . . . .

b 모든 (그들의) 싹들에게

39

a . . . . .

b . . . . .

c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d . . . . .

#### 4. 찬양시의 문맥, 구조와 내용

##### 4.1. 찬양시의 문맥

찬양시의 도입부는 오드카 아도나이로 시작된다. 이로써 찬양시의 서두가 분명한 반면 찬양시의 종결 부분은 분명치 않다. II단 하단 부분과 III단 상단 부분 모두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이다. III, 19에서 다시금 오드카 아도나이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1QH II, 31-III, 18까지 한편의 찬송시일 가능성도 있고 그 중간 어느 부분에서 새로운 찬송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이전 찬송시가 II, 20-30으로 11행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이 찬송시도 II단 끝이나 III단 상반부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III, 19-36까지 한편의 찬송시가 17행 정도의 비교적 긴 시도 있기 때문에 이 시도 II, 31-III, 18까지 이어진 긴 찬송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28행 정도의 분량을 한

편의 찬송시로 보기에는 너무 긴 인상을 준다.<sup>6)</sup> 따라서 II, 31-III, 19까지 두 편의 찬송시가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편이 무난해 보인다. 37행 이후로는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이 찬양 시편의 끝을 알 수 없지만 39행에 어휘 하나까지 읽을 수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찬양 시편을 1QH II, 31-39라고 표기한다.

이 찬양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II, 20-30<sup>7)</sup>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가령 적대자들을 표현할 때, 32행에서 “매끈한 것을 구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는 22행에 “거짓 집 단이며 벨리알의 공동체”라는 표현과 상응한다. 그리고 적대자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내용인 “저들은 나의 발걸음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표현(32행)은 22b-23행에 나오는 표현과 거의 유사하다: “그들은 나의 인생이 당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 당신의 은혜로써 당신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나의 발걸음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찬양자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의 영혼(נַפְשִׁי)”(II, 20, 21, 24, 28, 29)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1QH II, 31-39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나의 영혼(נַפְשִׁי)”(1QH II, 31), “가난한 자의 영혼(נַפְשִׁי אֲבִיִּי)”(1QH II, 32), “불쌍한 자와 보잘 것 없는 자의 영혼(נַפְשִׁי עֲנִי וְאֲבִיִּי)”(1QH II, 34)”.

이처럼 1QH 문맥을 분석한 결과 제II단에 기록된 두 편의 찬송시가 용어상으로나 전체 내용에 있어서나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6) 물론 1QH에 수록된 찬양시들이 일정한 크기는 아니다. 찬양시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찬양시의 경우, 1QS II, 20-30(11행); III, 19-36(17행); V, 5-19(15행); VII, 6-25(20행) 정도이다.

7) 이 찬양시의 번역과 해석에 관해서는 김판임, “고난의 현재에 임하는 두 영적 지도자 의의 선생과 바울 비교(1QH II, 20-30과 고후 6:1-10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9:2 (2002 여름), 479-511 참조.

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 두 편의 찬양시가 이차적으로 수집되었다기보다 처음부터 둘이 연결되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로퐁크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sup>8)</sup>

#### 4.2. 찬양시의 구조와 내용

이 찬양시는 구약성서의 감사 시편과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sup>9)</sup> 도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이유를 밝힌다. 그 다음에 찬양자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적대자들의 소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절반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할애한다. 이러한 구조는 앤더슨이 구약성서의 시편들 중 감사 시편의 구조와 상응한다.

로퐁크는 이 찬양시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파악했다: 단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도입부(31행), 그 외 전체 내용에서 대 역전을 나타내는 “브아타 아도나이(그러나 당신, 주님)”를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적대자에 대한 고발(32-34a행),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up>10)</sup> 필자가 보기에 로퐁크의 구조 분석은 나무랄 바가 없다.

8) N. Lohfink, *Lobgesänge der Armen*, SBS 14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Verlag, 1990), 58.

9) 버나드 W. 앤더슨, 『시편의 깊은 세계』, 노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93-116 참조. 앤더슨에 의하면, 감사 시편은 크게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의 3부로 이루어진다. 서론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지를 밝히고, 본론부에서는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고충을 묘사하고 도움을 위해 외치며, 결론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한 행동을 다시 증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10) N. Lohfink, op.cit., 56-57.

## 4.2.1. 도입(31행)

1QH의 모든 찬양시들은 전형적인 도입 구문인 “당신을 찬양하  
나이다. 주님(אֱלֹהֵינוּ אֱדֹכָה אֱדֹנָי) 오드카 아도나이)”로 시작되며, 찬양의 이유  
를 간단히 제시한다.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는 일반 유대인들이 애용하는 표현인 아도  
나이(אֱדֹנָי)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하는 이유를 접속사 키  
(כִּי)와 함께 제공한다. 그러므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오드카  
아도나이 키(כִּי) אֱדֹנָי אֱדֹכָה)”는 찬양시의 시작을 알리는 전문용어라  
고 하겠다.<sup>11)</sup> 찬양시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도록 상처가 난 부분도  
많으나, 본고에서 다루는 찬양시는 전형적인 도입 구문으로 분명한  
시작을 알 수 있다.

찬양의 이유는 찬양자의 생명을 돌봐주심에 대한 감사이다: “당  
신의 눈동자가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아인(עֵינַי)은 인체의 눈을 말하  
는데, “당신의 눈동자(עֵינֹכָה)”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을 표현할 때 애용된다(시 17:8 참조). 나의 영혼(נַפְשִׁי)이  
란 네פע쉬(숨, 호흡, 영혼, 생명 등으로 번역됨)에 소유격 1인칭의 꼬  
리가 붙은 것인데,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 대신에 “나를 지키신다”  
나 “나의 목숨을 지키신다”고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다.

당신의 눈동자가 나의 영혼을 지킨다는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라  
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사 내용은 찬양자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  
으로 나타낸다: “거짓 해석자들의 열정으로부터 나를 구하셨기 때문  
입니다.”

11) 오드카 아도나이 키가 찬양의 도입구로 사용되는 경우(1QH II, 20; II, 31; III, 19; III, 37; IV, 37; V, 5; VII, 6; VII, 26)와 그 외에 찬양 도입 구로 바룩 아타 아도나이(1QH V, 20; X, 14; XI, 27; XVI, 8)도 사용된다.

찬양자가 앞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구렁텅이(הַחַשׁוֹן הַמְּוֹשֵׁי)”(1QH II, 21)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찬양시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찬양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거짓 해석자들의 열정”이다. 거짓 해석자들(הַבְּרִיחַ הַמְּלִיצִי, 트리체 카자브)이란 찬양자가 자신의 적대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다(1QH IV, 9-10 참조). 적대자는 트리체(해석자)이다. 그러나 올바른 해석자가 아니라 거짓 해석자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찬양자와 적대자는 결국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서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성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찬양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적대자가 주장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짓 해석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찬양자는 적대자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다른 해석을 추구한다. 찬양자와 적대자들의 대립은 결국 성서 해석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2. 적대자들의 소행 고발(32-34a행)

a) 도입부에서 적대자들을 거짓 해석자들이라고 표현하였다면 이제 32-34행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적대자들의 소행을 언급한다. 적대자들은 “매끈한 것을 구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표현은 1QH II, 15과 1QH IV, 10에서도 적대자들을 향해 사용된다. 적대자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사실은 구하는 자들이라는 복수 형태 뿐만 아니라 공동체(עֲרֵה)란 표현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QH II, 22에서는 적대자를 악의 상징인 벨리알을 사용하여 “벨리알의 공동체(עֲרֵה בְּלִיעֵל)”라고 표현한 것을 고려할 때, 매끈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적대자들을 매우 비감정적이고 내용적으로 접근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끈한 것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할라콧트(חלקה)가 적대자에게 해당하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아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매끈한 것을 구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적대자들이 해석에 있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찬양자는 거칠더라도 꾸미지 않고 성서를 해석하는 자라는 자의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거짓 해석이 매끄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끄러운 해석에 현혹되어 속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적대자들의 힘이 막강한 가운데, 찬양자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한다. “당신은 가난한 자(גביר אביון)의 영혼을 구하셨나이다.”

찬양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영혼을 구원하셨으므로 노래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다. “가난한 자의 영혼(נפש אביון)”이라는 표현은 앞서 나온 “나의 영혼”이나 “나”라는 표현과 함께 찬양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그(가난한 자)를 그들은 멸하려 하였고, 당신을 위한 제사 때문에 그의 피를 흘리려 하였나이다.”

이는 적대자에 대한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이다. 적대자 집단은 찬양자의 목숨을 해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을 위한 제사 때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성전 제의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때와 경우에 따라 드러야 할 성전 제물에 관해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토라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 대립으로 적대자들은 찬양자를 죽이려고 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찬양시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제의와 관련하여 의의 선생의 성서 해석과 적대자의 성서 해석이 달라서 적대자의 성전제의에 대해 의의 선생이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암살을 시도했던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선생이 요나단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진 문서 4QMMT<sup>12)</sup>에 의하면 의의 선생은 요나단이 도입한 바빌론의 달력으로 인해 생기는 절기상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주석서에도 의의 선생이 적대자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이 주석서에는 의의 선생과 그의 동료들의 적대자로 “악한 제사장(הַכֹּהֵן הַרַעֲ)이 다섯 번이나 언급된다(1QpHab VIII, 8; IX, 9; XI, 4; XII, 2; XII, 8).<sup>13)</sup>

하박국 주석서는 하박국서 1-2장을 구구절절 인용하면서 해석하고 있는데, 악한 제사장과 관련된 본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12) 4QMMT는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여섯 개의 문서(4Q394-399)를 가리킨다. 이 이름은 이 문서의 한 부분에서 토라의 모든 규정들을 요약하는 표현인 Miksat Ma'ase ha Tora(토라와 관련된 몇몇 실천들)을 제목으로 붙인 것이다. 이 문서가 편지라는 것, 그것도 기원전 2세기 중엽 의의 선생이 요나단에게 보낸 편지라는 연구결과는 쿨란 공동체의 구체적인 역사를 밝히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E. Qimron and J. Strugnell, “An Unpublished Halakhic Letter from Qumran,” *Biblical Archaeology toda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Biblical Archaeology Jerusalem, April 1984*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5), 400-407; J. Kampen and M. J. Bernstein, eds., *Reading 4QMMT. New perspectives on Qumran Law and History* (Atlanta: Scholars Press, 1996), 145-156.
- 13) 악한 제사장이 언급되는 쿨란 문서의 본문들 및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 송창현, “‘악한 사제’ 요나단 마카베오와 쿨란 공동체,” 「신약논단」 11:4 (2004 겨울), 895-922 참조. 송창현은 악한 제사장은 의의 선생의 적대자로서 기원전 152년 당시 대제사장을 내쫓고 불법으로 대제사장직을 탈취한 요나단 마카베오라고 보는 버머스, 밀릭, 예레미아스, 쉬테게만, 퀴에쉬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의의 선생과 악한 제사장의 관계에 관해 E. Puech, “The Essenes and Qumran, the Teacher and the Wicked Priest, the Origins,” G. Biccaccine, ed., *Enoch and Qumran Origins: New Light on a Forgotten Conne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5), 298-302 참조.

그 해석은 악한 제사장에 관한 것인데,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진리의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재물 때문에 계명을 어겼다

(1QpHab VIII, 8-10)

이 본문에 의하면 악한 제사장은 적어도 처음에는 진리의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곧 재물욕심으로 인해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 또한 XI, 4-8에 의하면, 악한 제사장은 의의 선생을 죽이기 위해 유배지까지 추격해 왔고, 휴일인 속죄일과 안식일에도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 해석은 악한 제사장에 관한 것이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의의 선생을 삼키기 위해 그의 유배지에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래서 그는 쉬는 축제일, 즉 속죄일에 그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 곁에 나타났다. 금식하고 쉬는 안식일에 그를 멸하기 위해

(1QpHab XI, 4-8)

악한 제사장은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의의 선생을 죽이려 하였고 그의 공동체를 핍박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징을 받았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 해석은 악한 제사장에 관한 것인데, 그가 의의 선생과 그의 동료들에게 행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비참해지도록 그를 원수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회복할 길 없는 파멸의 징계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롭게 하셨다.

(1QpHab IX, 9-11)

이 말씀의 해석은 악한 제사장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행한 것을 되갚아 주기 위한 것이다. 레바논, 그것은 공동체의 모임이고, 동물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다의 순박한 이들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파멸을 선고하실 것이다. 마치 그가 가난한 이들을 파멸시키려 했듯이

(1QpHab XII, 2-6)

하박국 주석서(1QpHab)에서 적대자는 악한 제사장 외에도 반역하는 사람들(II, 2) 혹은 거짓의 사람(II, 1; V, 11)으로 표시되고, 사악한 자들(1QpHab V, 5), 거짓을 발설하는 자(X, 9) 등으로 표시된다.

하박국 주석서가 쿰란 공동체 존속기간 중 비교적 후기에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sup>14)</sup> 찬양 시편의 의의 선생의 찬양시에 표현된 적대자들에 대한 고발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는 의의 선생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견해는 지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후세에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c)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으로부터 나의 발걸음이 나온다는 것을.”(33행)

찬양자는 적대자들의 무지를 지적한다. 똑같은 표현이 이전 찬양 시인 1QH II, 22-23에 나온다. 발, 혹은 발걸음(מַשְׁעָה)이란 존재의 기초이자 활동의 근본을 의미하는 말이다. 발걸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표현은 찬양자의 일거수일투족, 즉 그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고 있음을, 즉 찬양자 자신이 영락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함을 지적하

14) 하박국 주석서(1QpHab)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 Stegemann, *Die Essener, Qumran, Johannes der Täufer und Jesus* (Freiburg: Herder, 1993), 184-185 참조.

는 이유는 만일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토록 악한 짓은 하지 않았으리라는 기대가 반영된다.

d) “그러하여 그들은 나를 능멸하였고, 기만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의 입으로 수치가 되게 하였나이다(וַיִּשְׁמְנוּ לְבוֹ הַרְפָּה בְּפִי כָל הָאֱוִי וְרָחֵם).”(33-34a행)

찬양자의 현실은 적대자의 무지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고, 결국 이는 찬양자가 불행하게 여기는 현실인 것이다. 여기까지 찬양자가 겪는 현실적 상황을 적대자들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 4.2.3. 하나님 찬양(34b-39행)

34행 중간에 나오는 “그러나 당신(וַאֲתָה)”이란 말에서 지금까지 열거되었던 적대자들의 행악에 반전을 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소개된다: “그러나 당신, 나의 주님, 당신은 불쌍한 자와 보잘 것 없는 자의 영혼을 도우셨나이다”(34b)

앞서 찬양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 “나”, “나의 영혼”, “가난한 자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제 “불쌍한 자”, “보잘 것 없는 자(צָר וְעָנִי)의 영혼”이란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구원하셨다는 표현을 썼다면, 이제는 “도우셨다”는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

적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던 찬양자는 그러한 위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자의 생명을 위협했던 적대자들은 찬양자가 보기에 힘센 자들이었다. 찬양자의 힘으로는 그들을 싸워 이길 힘이 없다. 그들은 그를 욕했고, 죽이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찬양자는 적대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sup>15)</sup> “그들의 욕으로

인해 당신은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셨나이다.”(35행)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찬양자가 적대자들의 욕설로 상처받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이다.

찬양자 의의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자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내가 불경한 자들의 테리에 대한 공포로 인해 당신을 위한 제의를 포기하거나, 확고한 가치를 잃고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나이다.”(36행)

적대자는 다시금 “불경한 자들”로 표시된다. “테리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적대자들은 찬양자를 찾아와 폭력을 행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하박국 주석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다행히 죽음을 모면했지만,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테리에 대한 위협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가 하나님에 대한 제의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찬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예수의 시험사화가 연상이 된다. 사탄이 내게 절하

- 15) 의의 선생의 다른 찬양시에도 저자의 견고한 삶의 자세가 표현되어 있다. 가령 1QH VII, 6-10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내게 불어 넣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당신은 행악자들과의 싸움에 앞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모든 파괴 행위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당신의 언약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은 나를 마치 강한 성탑과 같이, 높은 성벽과 같이 세우시나이다. 반석 위에 나의 집의 기초를 놓으시나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초석은 내게 발판이 되고, 나의 모든 벽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담장이 될 것이나이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를 튼튼한 성으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넣어주시고, 당신의 언약으로 나를 가르치시니, 나의 혀는 당신 제자들의 것과 같나이다.”(본문과 해석은 로제의 앞의 책, 138-139 참조). 의의 선생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는 혹독한 위협 상황에서 살아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의의 선생의 성서 해석과 가르침을 따르고 신뢰하는 그의 공동체가 그에게 큰 힘을 제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예수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 찬양자 역시 그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위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제의/예배)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칭송하고 있다.

## 5. 찬양시에 나타난 신학과 역사

### 5.1. 하나님과 찬양자

하나님은 찬양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이기도 하다. 찬양자는 구원을 요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때 분명하다. 이 찬양시에서 찬양자는 나의 영혼(=생명, 목숨)(31b), 나(31c), 가난한 자의 영혼(4줄), 불쌍한 자와 보잘 것 없는 자의 영혼(8줄), 나의 영혼(35b), 나(35c)로 묘사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적대자들에 대한 이해를 반추해 보면 찬양자의 자기 이해가 더욱 분명해진다.

### 5.2. 적대자와 찬양자

쿠파 공동체의 리더인 의의 선생과 그의 적대자에 관해 여러 가설이 있었지만, 쿠파 연구가들은 어느 정도 합일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의의 선생과 그의 공동체의 적대자는 마카비 가문의 요나단이다. 마카베오 혁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유다 마카베오가 죽은 기원전 160년경에 마카베오 형제 다섯 중 막내인 요나단이 영도권을 잡는다(1마카 9:30-31). 그는 정권 초기 이스라엘의 힘을 다지기 위

해 수고하며,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다(1마카 10:1-11). 그러나 기원전 152년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159-152년까지 합법적인 대제사장으로 있던 의의 선생을 내쫓았다.<sup>16)</sup> 그 이후로도 요나단은 쫓아낸 대제사장을 죽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였다. 의의 선생과 그의 추종자들은 요나단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냈으며, 특히 의의 선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의 가르침이 올바르다는 입장에서 그를 의의 선생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요나단을 비합법적인 대제사장으로 간주하고, 그가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본고에서 다룬 찬양시를 이해하는 데 전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찬양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의의 선생의 시로 알려진 이 찬양사에서 적대자들은 “거짓 해석자들”로 언급된다(31): 적대자들의 성서 해석은 올바르지 못하다. 거짓되게 해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찬양자가 올바른 성서 해석자라는 것을 암시한다. 찬양자와 적대자는 성서 해석에서 갈라진다. 적대자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성서를 해석했지만, 그들의 해석은

---

16) 이에 관해서는 마카베오서에도 언급이 없고, 당시의 역사를 기술한 요세푸스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당시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기원전 159-152년에는 대제사장이 공석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쉬테게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공석이라는 점에 이심을 품는다. 성전이 건재한 시기에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공석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H. Stegemann, op.cit., 205-206. 의의 선생에 관해 J. Murphy-O’Conner, “Teacher of Rightousness,” *Anchor Bible Dictionary* IV, 340-341; E. Puech, “Le grand pretre Simon(III) fils d’Onias III, le Maitre de Justice?,” W. Reinbold und A. Steudel, eds., *Antikes Judentum und Friibes Christentum. FS für H. Stegemann zum 65. Geburtstag*, B. Kollmann (Berlin: Walter de Gruyer, 1999) 137-158; M.A. Knibb, “Teacher of Rightousnes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2, 918-921 참조.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해석보다 매끄럽게 하려고 애썼고, 따라서 매끄러운 해석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서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제의와 관련된 것이다. 찬양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제의를 위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거짓해석자들에 대항한다.

그들은 힘센 자들이고, 그 힘을 사용하여 찬양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 그들은 찬양자를 피흘려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찬양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그들은 불경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다. 그들은 찬양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은 찬양자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찬양자를 경멸하고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적대자들이 이해되었다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찬양자의 자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적대자들이 거짓해석자들이라면, 찬양자 자신은 의로운 해석자이다. 그들이 힘센 자들로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찬양자는 힘없이 그들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자이다.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한 자들이라면, 찬양자는 알 것을 알고 지키는 경건한 자이다. 찬양시에 하나님에 대한 제의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찬양자의 주된 관심은 성전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적대자와의 해석의 갈등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제의에 대한 합법적인 권력 다툼이었을 것이다.

## 6. “가난한 자(עני, אביון)”에 관하여

이 찬양시에서 찬양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표현에는 어떠한 자의식이 숨어 있을까? 그는 과연 물

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구약성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잠언에서 가난은 계으름의 결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시편이나 예언서에서는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묘사된다.

### 6.1. 잠언에서의 가난한 자

잠언에서는 가난이 무지와 계으름의 소산으로 경멸되고 있다.

계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늙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 6:9-11)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 21:17)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임이니라

(잠 23:21)

물론 가난한 자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잠언에 나온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 21:13)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라고 독려하고 있다.

너는 할 말 못하는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바른 판결을 내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עני ואביון)의 권리를 세워주어라.

(잠언 31:8-9)

이와 같은 현자들의 발언을 고려할 때 잠언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배려해야 할 타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쿵란의 찬양시집에서 찬양자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지칭한 것은 잠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6.2. 시편에서의 가난한 자

시편에서 가난한 자란 표현은 매우 풍부하게 등장한다. 쿵란의 찬양시집에서와 유사하게 시편에서도 종종 찬양자 자신이 “가난한 자”로 묘사된다.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עני)를 잊지 마옵소서”(시 10:1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עני ואביון)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40:17); “나는 가난하고(עני)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시 69:29);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עני ואביון) 나를 보살피 주옵소서.”(70:5)

가난한 자들이란 사람이 어떻게 해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나타난다. “주님은 가없는 자들(עני)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기울이시어 그들 마음 굳세게 해주신다”(시 10:17-18); “당신은 권세 있는 자에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עני ואביון)를 구하시거늘”(시 35:10); “여호와는 궁핍한 자(עני)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

여 수금된 자를 떨시치 아니하시나니”(69:33); “저는 궁핍한 자(אֲבִיּוֹן)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עָנִי)도 건지며 궁핍한 자의 생명(נַפְשׁוֹת אֲבִיּוֹנִים)을 구원하며”(72:12-13);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영혼, 생명)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74:19)

시편에서도 아니(עָנִי)와 에브온(אֲבִיּוֹן)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아니를 주로 가난한 자, 에브온은 주로 궁핍한 자로 번역하였으나, 이 둘은 어떤 말로 번역해도 의미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 6.3. 쿰란 문서에서 가난한 자

쿰란 문서에서 “가난한 자(אֲבִיּוֹן)”라는 표현은 주로 찬양시집(1QH) 본문에서 나온다(1QH II, 32; III, 25; V, 16, 18, 22). 그 외에 전쟁문서(1QM XI, 9, 13; XIII, 14)와 다마스쿠스 문헌(CD VI, 21; XIV, 14), 그리고 페쇄르 주석서인 하박국 주석서(1QpHab XII, 3, 6, 10)과 시편 37편 주석서(4QpPs37 I, 9; II, 10)에 나온다.

특이한 것은 가난한 자(אֲבִיּוֹן)란 표현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마스쿠스 문헌에서는 불쌍한 자(עָנִי)와 함께 쓰이고 있고, 1QH에서는 네페쉬(영혼)와 결합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1QH II, 32; III, 25; V, 18). 시편과 마찬가지로 쿰란 문서에서도 가난한 자(אֲבִיּוֹן)이란 표현은 불쌍한 자(עָנִי) 혹은 보잘 것 없는 자(שָׁרָה)와 함께 의미의 차별없이 사용되기도 한다(가령 1QH II, 32-34; V, 13-14 참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보잘 것 없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요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다.

여기서 찬양자의 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찬양시 문맥에서 볼 때, 경제적인 곤궁, 물질적인 궁핍이나 육체적인 고난과 같은 것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결국 1QH에 언급된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

은 게으른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는 의미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찬양자는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노래에 나오는 경건한 자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라는 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가난한 자라는 자기표현이 현실을 떠난 낭만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이 찬양시에서 가난한 자라는 찬양자의 자의식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의지 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힘센 자, 거짓된 매끄러운 성서 해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자기 자신과 그의 공동체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적대자들에 대한 현실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하박국 주석서에서 볼 수 있듯이 쿵란 공동체의 리더인 의의 선생뿐만 아니라 쿵란 공동체도 스스로를 “가난한 자들”이라고 칭했고, 반면에 그들의 적대자인 악한 제사장에 대해 재물욕심이 있는 자로 표시한 것은 의미 있게 보인다(1QpHab VIII, 10; XII, 2-10 참조). 1QH II, 31-39와 하박국 주석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쿵란 공동체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본다.

1) 가난한 자란 찬양자인 의의 선생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의 자기표현이기도 하다.

2) 가난한 자란 표현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

3) 적대자들이 재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거짓으로 성서를 해석한 것에 반해 의의 선생과 그의 공동체는 올바른 성서 해석을 따른다.

4) 가난은 지상에서 누리는 재산의 부족이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반대 개념으로 부자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5) 가난한 자들이 언급되는 문맥에서는 적대자들의 꾀박에 관한

것이 언급된다.

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 구조되고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힘없는 사람이다.

7) 가난한 사람이란 표현은 경건한 사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 7. 나오는 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구성된 내용 없는 노래가 아니다. 찬양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찬 구체적인 현실을 고발하면서, 그러한 현실에서도 위협적인 힘센 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제의를 지키려는 찬양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굳게 지킬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 찬양시에서 찬양자 자신을 표현하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보잘 것 없는 자”(히브리어로 에브온, 아니, 로쉬) 모두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찬양자의 처지는 적대자의 위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이 거짓 해석자들이고, 그들이 세력을 잡고 있고, 그들이 힘을 모아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찬양자는 이에 대응할만한 군사적인 힘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자는 자신의 현재의 무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 적대자들은 부유하고, 그들은 정치적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힘센 자들이고, 그들은 소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찬양시에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보잘 것 없는 자”라는 찬양자의 자기표현은 이러한 현실감을 나타내는 데 의도가 있

지 않다. 이러한 표현은 적대자들에 대한 상대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포악한 행위로 심히 어려운 처지에서 놓인 찬양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그의 구원을 간구하고 찬양하는 자의 자의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보잘 것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경건한 자세를 표현해 주는 말이다. 즉 경건한 자의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쿰란 문서, 찬양시집, 1QH II, 31-39, 가난한 자, 의의 선생, 악한 제사장

<Key Words>

Qumran Texts, Hodajot, 1QH II, 31-39, the poor, the Teacher of the Righteousness, the wicked priest

## 참고문헌

- 김판임, “고난의 현재에 임하는 두 영적 지도자 의의 선생과 바울 비교 (1QH II, 20-30과 고후 6:1-10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9:2 (2002 여름), 479-511.
- 버나드 W. 앤더슨, 『시편의 깊은 세계』, 노희원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송창현, “‘악한 사제’ 요나단 마카베오와 쿰란 공동체,” 「신약논단」 11:4 (2004 겨울), 895-922.
- Kampen J. and Bernstein, M.J., eds., *Reading 4QMMT. New perspectives on Qumran Law and History*, Atlanta: Scholars Press, 1996.
- Knibb, M.A., “Teacher of Rightousnes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2, 918-921.
- Lohfink, N., *Lobgesänge der Armen*, SBS 14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Verlag, 1990.
- Lohse, E., *Die Texte aus Qumran: Hebräisch und Deutsch*,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 Maier, J., *Die Qumran-Essener: Die Texte vom Toten Meer, Bd I, UTB 1862*, München: Ernst Reinhardt, 1995.
- Martinez Florentino Garcia, Tigchelaar and Eibert J.C.,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1997.
- Murphy-O’Conner, J., “Teacher of Rightousness,” *ABD* 6 (1992), 340-341.
- Puech, E., “Le grand pretre Simon(III) fils d’Onias III, le Maitre de Justice?,” W. Reinbold und A. Steudel, eds., *Antikes Judentum und Frühes Christentum. FS für H. Stegemann zum 65. Geburtstag, B. Kollmann*, Berlin: Walter de Gruyer, 1999, 137-158.
- Puech, E., “The Essenes and Qumran, the Teacher and the Wicked Priest, the Origins,” G. Biccaccine, ed., *Enoch and Qumran Origins: New Light on a Forgotten Conne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5,

298-302.

Qimron E. and Strugnell J., "An Unpublished Halakhic Letter from Qumran," *Biblical Archaeology toda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Biblical Archaeology Jerusalem, April 1984*,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5, 400-407.

Stegemann, H., *Die Essener, Qumran, Johannes der Täufer und Jesus*, Freiburg: Herder, 1993.

Stegemann, H., *Rekonstruktion der Hodayot. Ursprüngliche Gestalt und kritisch bearbeiteter Text der Hymnenrolle aus Höhle 1 von Qumran*, Dr. theol. Diss., Heidelberg, 1963.

Sukenik, E.L., *The Dead Sea Scrolls of the Hebrew University*, Jerusalem: Hebrew University Press, 1955.

<초록>

## 경건한 자의 찬양

-1QH II, 31-39의 번역과 해설-

김판임

(세종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논문은 첫 번째 콤파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서 찬양시집(1QH)의 II, 31-39의 번역과 해설을 다룬 것이다. 이 찬양시는 콤파 문서를 기록하고 소장했던 공동체의 리더인 의의 선생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찬양시에는 의의 선생의 하나님 이해와 적대자와 자기 이해가 잘 나타나 있어서 저자의 역사적 정황과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찬양시에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자로 묘사된다. 찬양자의 현실이 적대자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과 욕설과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다. 이 찬양시에서 적대자들은 거짓 해석자들, 적대자에 대해서는 후기 문서인 하박국 주석서를 참고로 하면 더욱 분명한 역사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하박국 주석서에는 의의 선생과 그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적대자로 “악한 제사장”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의의 선생의 적대자는 요나단 마카베오로 이해되고 있다. 특별히 이 찬양시에서 저자는 자신을 지칭할 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보잘 것 없는 자”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자기 이해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면서 찬양시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덧붙였다.

<Abstract>

## A Hymn of godly Man in Qumra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1QH II, 31-39.

Dr. Panim Kim  
(Sejo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translate and interpret 1QH II, 31-39. This Text is one of the Hymns which are accounted as Hymns of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the founder and the leader of the Qumran Community. This Hymn is selected especially because it is an excellent example that gives us some historical view about the situation of the singer and his community and the Understanding of their theology.

In this Hymn, God is always celebrated as the Savior even though the singer is in the bad situation with the danger of the life, insults, distresses and persecutions of his enemies.

The enemies are described as the false interpreter and terrorist. About the opponent the pesher commentary on Habakkuk(1QpHab) gives detailed historical Informations. In 1QpHab, a person called the wicked priest was a violent opponent of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and his community.

According to the main theory of the Qumran Experts as Vermes, Milik, Stegemann and Puech, the wicked priest was Jonadan of Maccabean who was the high priest in 152 B. C. and tried to kill the Teacher of the Righteousness, the previous high priest in Israel.

In this hymn is the singer called as the poor, the needy or the weak. The poor is not chosen in the financial, but the religious meaning in order to express the suffering situation in which the singer needs the help of God.